

인터넷 신종 마약조직 첫 적발

GHB 제조·판매...전남경찰, 6명 구속·3.7ℓ 압수

(속칭 물 필로폰)

'성범죄 악용' 구매자 수사 확대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고 있는 신종마약 GHB(Gamma-hydroxybutyrate)를 국내에서 제조·판매해 온 일당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 마약 제조법을 손쉽게 배워 제조·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0일 신종마약류인 GHB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씨로부터 GHB를 구입한 석모(37)씨 등 구매자 4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 구매자 3명의 신원을 추가로 파악해 이들을 뒤쫓고 있다. 경찰은 이씨 등으로부터 1천633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6천500만원 상당의 GHB 3.7ℓ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7월 서울 동대문구 문래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GHB 제조방법을 알아낸 뒤 화공약품을 이용해 제조한 GHB를 인터넷을 통해 한 차례에 8~25만원 받고 모두 8차례에 걸쳐 모두 500cc 판매한 혐의이다. 500cc는 250명에게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구매자 석씨 등은 무색 무취인 GHB를 음료수에 섞어 먹이면 여성과 손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인터넷 판매공고를 보고 이메일로 주문을 한 뒤 택배를 통해 GHB를 전달 받은 혐의이다.

경찰조사 결과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이씨 등은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성범죄에 주로 이용되면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GHB를 만드는 방법을 발견하고 사무실에서 이를 직접 제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GHB(Gamma-hydroxybutyrate)=무색무취로 소다수나 물 등 음료에 타서 마신다고 해서 '물 필로폰' 또는 '물 뽕'으로 불리며 미국·캐나다·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면서 '데이트 강간약물(Date rape drug)'로 알려져 있다. 알코올 음료에 타 마시면 효과가 급속히 배가되어 성적 흥분 상태에 도달하거나 의식불명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적절한 비율로 섞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화공약품까지 구입해 GHB를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제조한 GHB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에서도 정확히 마약 성분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매된 GHB가 대부분 성범죄 등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술이나 음료 등에 섞어 무색 투명한 형태로 복용하기 때문에 일부 여성들이 마약인 줄 모르고 마셔 성폭행 당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GHB를 복용 또는 판매하다 검거된 사례는 간혹 있었지만, 직접 제조해 판매한 경우는 처음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0일 오후 광주시 서구 월산동 전남지방경찰청 브리핑실에서 강용원 마약수사대장이 인터넷 마약 제조·판매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인 GHB(Gamma-hydroxybutyrate)를 들어보이고 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광주 고교 2곳 학생 60여명

급식 먹고 집단 설사 증세

광주시내 고교 2곳에서 학생들이 집단 설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C고교에서 학생들이 집단 설사 증세를 보여 관찰 보건소가 가검물과 음용수 등을 채취해 시 보건환경연구원 에 역학 조사를 의뢰했다.

설사 증세를 보인 학생은 60여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는 교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7일 점심 급식 이후 이 같은 증세를 보이는 학생이

늘어났으며, 현재 5명 정도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광주 동구 C여고에서도 학생 30

여명이 집단 설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가검물을 채취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여고에서도 7일부터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이 1학년이지만 2학년에서도 같은 증세를 보이는 학생이 발견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희중기자 chae@

반대파 보복 폭행 모의 조폭 20명 무더기 검거

목포경찰은 10일 "반대파에 폭행 당했다"며 보복 폭행을 하려던 목포 S파 행동대원 이모(26)씨 등 같은 조직원 20명을 폭력 등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3시께 무안군 망운면 T해수욕장 T펜션에서 각종 등 흥기로 반대파인 또 다른 S파 조직원들을 보복하

자고 모의한 혐의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같은 조직원이 전남 새벽 목포시 상동 A카페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4~5명에게 폭행 당하자 이를 반대파 조직원들의 소행으로 보고 보복 폭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승객에 불친절 버스기사 해고 정당"

광주지법 판결

승객과 다툰 끝에 버스운행을 10여 분간 중단한 버스기사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전주혜)는 10일 양모(49·버스운전자) 씨가 D운수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승객들에게 화를 내고 버스운행을 10여

분간 거부하는 등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무시한 점이 인정되며, 해고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5시 50 분께 광주시 북구 연제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이 모두 타기 전에 문을 닫는 바람에 승객 안모씨의 우산이 문에 끼자 10여분간 버스운행을 중단하며 말다툼을 벌였다가 해고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군 장교 부인들 상대 5억 편취

40대 女 사기범 징역 2년 6월

광주지법 선고

광주지법 형사2 단독 김태병 부장판사는 10일 군 장교 부인들과 자신의 내연남을 속여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44·여)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돈을 값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남편들이 같은 사단에 근무해 친분이 있는 점을 악용하고 자신이 백화점 매장 등을 운영하는 것 처럼 속여 군 장교 부인 등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3월 31일께 충북 모 군인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같은 사단에 근무하는 장교의 부인 강모(39·여)씨에게 "중소기업 사장 부인인 친한 언니가 돈이 필요하네 돈

을 빌려주면 원금의 2%를 이자로 주겠다"며 8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남편 명의로 부인 2명에게 2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상가건물을 경락받는데 투자하라"는 등 거짓말로 내연남에게 2억 3천여만 원을 쟁긴 혐의도 적용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전북·제주

체불임금 33억원

추석을 보름 앞둔 10일 현재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체불임금이 3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노동청(청장 권영순)은 이날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33억원으로, 996명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2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해 체불 청산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나원침 (7305) 김중두



다들 물어봐 신빙성 KCC

DS건설(주) KCC-최고, 현수, 도어, 대리점

KCC광호, 시스텔, 영호, 생산, 시공

▶ 02-2229-1414-1424 ▶ 02-2229-0001-0002

(주)본드나리 KCC-신리온, 메인, 대리점

실리온, 방수, 접착, 타이브

▶ 02-2229-1414-1424 ▶ 02-2229-0001-0002

감금 30대 女 인터넷 게임에 'SOS'

상나팔

5년 전 이혼한 전 남편에게 4시간 동안 폭행·감금 당한 카페 여주인이 인터넷 게임

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위기를 모면.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문모(여·35)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자신이 운영하는 M카페에서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이유로 전 남편(36)에게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맞으며 감금 당했다는 것.

○문씨는 남편이 휴대전화와 일간지를 몰수하며 경찰에 신고를 못하게 했는데, 남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평소 즐기던 인터넷 게임 '리니지'에 접속해 다른 회원들에게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

○경찰은 '누군가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112 지령실로 걸려 온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해 강제를 검거.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국민일보가 7년째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캠페인을 하며 '소비가 많은 좋은 약'을 소개하고 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북쪽아이였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고 해결제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랑으로 낮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갖는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비타민 A, C, E의 보급
-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
- 면역 강화, 노년기
- 눈의 건조감과 관해, 이명증
- 갱년기 부부관 등 다양한 여성 질환 예방
(기타, 주근깨와 눈화, 안노출물, 비염 등)
- 말초혈행장애 및 경년기 시력 증진에 효과! 이며, 뇌혈관, 순환계질 수족냉증, 아연의 보급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jicpharm.com
고객센터 전화(주선기 부하) 080-022-2200

광고 문의 023-1500